

‘4G 무승’ 전남, ‘15G 무패’ 인천 독주 제동 걸었다

K리그2 19라운드경기서 2-1 승...알베르피·정지용 결승골
2위 수원삼성, 4점 차 추격...전남, 플러스 스타디움상 수상

전남드래곤즈가 1위 인천유나이티드의 15경기 무패행진을 저지했다.
김현석 감독이 이끄는 전남은 지난 5일 광양축구 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정규리그 19라운드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42분 터진 정지용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5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하면서 무승 고리를 끊어냈고, 선두 독주 중인 인천은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전반 19분 전남이 선제골을 장식했다. 주인공은 알베르피였다.
발디비아가 왼쪽에서 골대 오른쪽에 있던 하남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하남이 머리로 왼쪽에 있던 임찬율에게 공을 넘겼고, 상대에 둘러싸여 있던 임찬율은 뒤에 기다리고 있던 알베르피에게 패스를 했다.
공을 받은 알베르피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했고 이내 인천의 골망이 출렁거렸다.
하지만 전반전은 1-1로 마무리됐다.
전반 42분 인천 김건희가 길게 올려준 공이 박승호에게 연결됐다. 공을 잡은 박승호가 전남 박스로 진입해 달려 나온 골키퍼 최봉진을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고태원이 다급하게 태클을 시도했지만 박승호의 발이 빨랐다.
이후 두 팀은 후반 막판까지 1-1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후반 42분 기다렸던 전남의 골이 나왔다.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잡은 발디비아가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지역까지 진입했다. 발디비아에게 시

선이 집중된 상황, 발디비아는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중앙에 있던 정지용에게 공을 넘겼다.
정지용은 원터치 슈팅으로 인천 골대를 가르면서 2-1을 만들었다.
이후 전남과 인천은 나란히 골대를 때리면서 망을 쳤다.
역전골을 장식한 정지용이 후반 막판 상대의 패스를 낚아채 드리블 질주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대를 강타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진행된 인천의 공격에서는 김건웅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면서 전남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남은 이후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15경기에서 무패행진을 달렸던 인천은 전남에 막혀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전남은(9승 7무 3패·승점 34) 2위 수원삼성(11승 5무 3패·승점 38)을 승점 4점 차로 추격했다.
1위 인천(14승 3무 2패·승점 45)과는 11점 차다.
한편 이날 경기에 앞서 ‘1차 플러스 스타디움상’ 시상식이 열렸다.
‘플러스 스타디움상’은 지난 시즌 평균 대비 관중수가 가장 증가한 구단에 수여되며 전남이 1~13라운드 평가 결과 수상팀이 됐다.
전남은 1~13라운드 홈경기에서 지난해(4043명) 대비 2134명이 증가한 6177명의 평균관중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의 최정원(95번·왼쪽부터), 고태원, 노동권이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2-1 승리로 마무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남과학대 변준현·양채운, 대한볼링협회장배 남녀 개인전 우승



변준현

양채운

전남과학대학교가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 대학부 남녀개인전 동반 우승을 이뤘다.
전남과학대 변준현(2년)과 양채운(1년)은 지난 4일 전주 천일볼링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대학부 남녀 개인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변준현은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213·268·247·237·214·259점 등 6게임 합계 1438점(평균 239.7점)으로 경북대 전형우(합계 1411점·평균 235.2점)를 크게 앞서면서 대회 정상에 올랐다.

3위는 강원도립대 김영진으로 합계 1405점(평균 234.2점)을 만들었다.
양채운은 1·2게임에서 247점과 248점을 만들며 기본 좋은 출발을 한 뒤 214·246·224·218점을 더 하면서 합계 1398점(평균 233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경북대 김지는(합계 1340점·평균 223.3점), 3위는 가천대 지영(합계 1320점·평균 220점)이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깊은 추모 물결”... ‘자동차 사고 사망’ 조타 장례식 엄수

리버풀·포르투갈 동료 참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8세의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디오구 조타의 장례식이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6일 “디오구 조타와 그의 동생 안드레 조타(25)의 장례식이 현지시간 5일 고향인 포르투갈 곤두마르의 교회에서 거행됐다”라며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두 형제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전했다.
디오구 조타와 동생인 안드레 조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 0시 30분께 스페인 사모라에서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조타는 아내 루테 카르도소와 결혼한 지 10일 만에 참변을 당해 주변 사람을 더 안타깝게 했다.
최전방 공격수와 윙어를 모두 뛰는 조타는 아들

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올버햄프턴(잉글랜드)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리버풀에서 활약했다.
다섯 시즌 동안 EPL에서만 123경기에서 47골을 터뜨렸으며, 공식전에선 182경기를 뛰며 65골을 올렸다.
리버풀은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결번해 그의 활약을 기리기로 했다.
포르투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선 49경기에서 14골을 뽑아냈다.
장례식에는 조타가 활약한 리버풀 선수단과 함께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들도 함께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을 비롯해 ‘캡틴’ 버질 판데이크 등 리버풀 선수들이 두 형제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붉은 유니폼 상의의 모양의 조화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며 장례식이 시작됐다.
조화에는 리버풀에서 조타가 사용한 등번호 20번이 새겨졌고, 또 다른 조화에는 포르투갈 2부리그 페나피엘에서 뛴 때 안드레가 썼던 등번호 30번이 장식됐다.

장례식에 앞서 조타의 부인과 가족들도 도착했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함께 맘을 흘렸던 브루누 페르난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앙 칸셀루, 후벵 네베스(이상 알힐랄), 주앙 펠릭스(첼시),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 등도 참석했다.
장례식에 앞서 베르나르두 실바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조타는 모두에게 좋은 친구였다. 열정과 의지, 끈기로 성공한 선수”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조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슬퍼했다.
이날 장례식에 맞춰 추모 행사도 잇달았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도르트문트(독일)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8강전이 치러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선 킥오프에 앞서 추모 목념이 치러졌다. 또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는 조타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많은 팬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2025 FIFA 클럽월드컵 4강 진출을 기뻐하는 PSG 선수들.

/연합뉴스

PSG, 뮌헨 꺾고 클럽월드컵 4강 진출

2명 퇴장에도 2-0 승...이강인·김민재 결장에 ‘코리언 더비’ 무산

‘유럽 축구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2명이 퇴장당하는 악재를 이겨내고 독일 분데스리가 ‘강호’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다만 이강인(PSG)과 김민재(뮌헨)는 모두 벤치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국내 팬들이 기대했던 ‘코리언 더비’는 펼쳐지지 않았다.
PSG는 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뮌헨과 2025 FIFA 클럽월드컵 8강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PSG는 1-0으로 앞서던 후반 37분 윌리안 파초가 레드카드를 받은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 2분에

는 루카스 에르난데스마저 퇴장당해 9명이 뮌헨을 상대하는 힘든 상황을 맞았지만, 후반 추가시간 막판 쾨글을 쫓으며 2골 차 승리를 따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2025 FIFA 클럽월드컵 4강 대진도 완성됐다.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PSG는 이날 도르트문트(독일)를 3-2로 물리치고 4강에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10일 오전 4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또 다른 준결승전은 9일 오전 4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플루미넨시(브라질)와 첼시(잉글랜드)의 대결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종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청단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청단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담다
조 선 아
Cho Sun A Solo Exhibition

211 2025-08-10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